

가족친화 지역사회와 가정의 공동체적 삶 회복을 위한 도시농업

최재순

인천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주거학 전공교수

김진덕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1.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하는 가족친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건강성 향상과 지역의 공동체적 삶을 지원하는 도시농업

근로자의 가족책임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일과 가정생활 양립제도의 개념이 1980년부터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활성화, 가족형태의 변화, 남녀근로자의 의식 변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기인한다. 미국 정부에서는 1997년 클린턴 대통령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유럽은 국가주도의 일·가정생활 양립 정책으로 출발하여, 출산 및 육아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GDP의 3%내외를 공보육시설 확충 및 출산보너스, 부모휴직 탄력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에 투자하고, 영국은 기업의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이 빨라 기업의 60%가 1개 이상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유럽과 같이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와 맞벌이 증가, 근로자 의식변화, 저출산·고령화 진전 등과 같은 사회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남성-상용근로자, 여성-전업주부'라는 전형적인 가족형태를 전제로 한 일본적 인사관리제도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제도 도입·시행이 확산되면서 가족친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정부가 1995년에 '직장과 가정을 생각하는 달'을 정하고, 직장과 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선도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가족친화적인 기업표창제도를 만들어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공원, 지역별로 존재하는 커뮤니티 가든과 시민농원은 가족친화 지역사회 만들기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족의 건강생산공간, 지역주민들의 이웃사촌 만들기 공간, 가족의 문화공간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가족친화 지역사회를 목표로 할 때 가정과 지역별로 물리적 조건에 따른 도시농업 활동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공동체활동의 중심공간과 가족봉사단의 활동공간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생활공간의 물리적 조건에 따른 도시농업활동은 도시환경, 생태교육, 여가문화, 복지적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대도시나 중소도시, 농산어촌 어디에서나 필요로 하는데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육아 품앗이 활동, 가족 봉사단, 가족문화와 이웃사촌 만들기 관련 사업으로 공동체적 삶의 회복을 위한 녹색프로그램 으로서의 도시농업은 큰

의미를 가진다. 가족의 건강성, 가족의 환경친화 교육,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별, 가족별, 기업별로 각각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할 수 있는 일 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도시 텃밭 가꾸기, 풀잎학교, 숲속유치원, 녹색 전차길, 녹색 자전거길, 옥상, 벽면녹화, 바람길, 도심 속의 생태원(biotop) 만들기 등은 환경교육과 녹색성장측면에서도 바람직하나 어린 시절 다양한 체험과 자연관찰 학습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존재한다면 어린아이들이 들꽃처럼 아름답고 다양한 색깔을 지닌 어른으로 성장하여 이 사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모두 자연, 문화 체험교육을 통해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초질서를 스스로 깨우치는 선진 시민들이 될 것이다.

기존의 도시계획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환경에 대한 규제와 경제적 활성화라는 상반된 목표를 추구하여왔다. 그러나 녹색도시계획은 순환형 신진대사작용을 준수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 까지도 얻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이때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CSA, 지역사회 지원형 농업, 지역사회에 토대를 둔 농업)가 필요하고, ‘Agriculture Supported Community’(ASC, 농업이 지원하는 지역사회, 농업이 토대가 되어, 지원하고 지탱되는 지역사회)로 바꾸거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농업이 추진된다면 좀더 지속가능한 그리고 가족 친화적 도시농업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으리라 본다.

도시농업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2006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했던 ‘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 및 복원, 어울려 사는 커뮤니티 만들기, 학교 및 의료 공동체 만들기,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도시, 마을 만들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 회복

예로부터 농업은 촌락공동체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여 왔다.

농경사회에서 가족단위의 노동과 마을단위의 공동활동에 의한 협업은 낮은 농업생산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농업생산의 특성이 촌락(마을)공동체를 이뤄 예로부터 마을사람들 사이에 상호부조정신이나 이웃 의식이 강하며 주민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왔다. 우리나라의 농경문화에서 발달한 두레, 품앗이의 전통은 이러한 공동체 문화의 중요한 예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지배적 의식구조로서의 개인주의의 성행과 도시의 과밀화 현상 속에서 이웃을 모르면서 사는 도시인들에게 농산어촌의 따뜻한 공동체 정서가 그리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시농업은 농사를 통한 생산물이라는 상품적 가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활용하는 활동이다. 즉 농사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여가활동과 생태적 감수성 함양,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생태적 순환기능의 회복 등 녹색 도시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도시환경에 기여함과 더불어 공동체 문화의 형성에도 많은 역할을 한다. 농사가 갖고 있는 공동체적 특성을 활용하여 가족공동체, 이웃공동체의 문화를 만드는데 도시농업이 기여할 수 있다.

작물 재배력에 따른 농사의 과정은 텃밭에서의 자연스러운 이웃 간의 만남을 제공한다. 텃밭에서의 만남은 이웃간의 농사정보의 교류, 종자와 모종의 나눔, 밭만들기, 거름주기, 물관리 등의 공동 작업을 필요로 하고 농기구의 공동보관 등 공동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텃밭이 갖고 있는 공동체의 특성이

발전하면 주말농장 보다 결속력이 높은 공동체 텃밭으로 발전할 수 있다.

도시텃밭에서의 농사는 채소류 등의 작물을 자급하는데 목적을 두면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나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의 증대는 농산물의 생산을 친환경적 방법으로 경작하는 것을 유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텃밭 농사는 손길과 정성이 많이 가는 노동집약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작은 평수라 하여도 생산량이 많다.

이러한 도시농업의 특성을 종합 했을 때 공동체 회복의 효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적 노동으로 부터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

실업률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층은 생산적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다. 노인정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도 생산적 노동과는 괴리되어 있는 활동이다. 이러한 생산적 노동으로 부터의 소외는 노인들의 자존감의 상실과 정서의 불안에 의한 심신의 쇠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도시농업은 작물의 성장과 수확의 과정에서 건강한 여가활동과 더불어 원예치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나 노인들의 경우 과거 농사경험이 풍부하여 작물재배를 통한 도시농업활동은 노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친환경적으로 경작되는 텃밭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고 퇴비를 만드는 일은 하나하나 소중한 노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② 가족공동체와 세대 간의 소통에 기여한다.

미디어 산업은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으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부정적 기능 또한 만만치 않다. 우리의 문화전반을 미디어문화가 점령함으로써 인터넷, TV, 휴대폰에 의한 스크린 중독이라는 역기능과 더불어 가족 간의 대화의 단절과 건강한 가족문화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가족의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이들과 손잡고 상추며, 고추를 직접 길러 따먹으면 안전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농사에 필요한 퇴비를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 퇴비화 시스템의 활용은 각 가정에서 음식물의 처리에 따른 어려움과 비용을 절감해 줄 뿐 아니라 유기 순환의 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농사는 세대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 채팅언어로 표현되는 아이들의 문화와 급속도로 변화되는 사회에서 아이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서적공감대를 형성하는 교류와 소통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흙을 만지며 놀이와 체험공간으로서의 텃밭은 농사를 통해 삶의 일부를 살아왔던 노인세대와 아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③ 도시농업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광우병 위험과 멜라민 파동,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식품, 채소의 잔류농약 문제 등 먹을거리에 대

한 안전성 문제가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8년 11월초 SBS의 설문조사에서도 84%의 응답자가 식품안전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적 불안은 식품에 대한 생산, 검역, 유통 전반의 사회적 안전시스템의 점검을 요구하고 있으며 먹을거리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나 식량자급률이 27%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먹을거리의 73%를 수입에 의존하여 식품안전성의 근본적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재배한 것은 안전한 먹을거리의 주요한 공급처가 된다. 또한 농산물의 소비자가 텃밭농사를 통하여 생산자 체험을 하는 과정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게 하며, 친환경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채소를 기른 아이들이 채소를 먹는다. 서구화된 식습관은 아이들의 가공식품과 육류 등에 대한 편식 등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을 갖게 하는데 텃밭에서의 농사체험은 자신이 정성들여 직접 키운 채소를 맛있게 먹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식습관을 바꾸는 일등 공신의 역할을 한다.

3. 도시농업 활용프로그램 사례와 평가

① 상자텃밭 보급활동

상자텃밭은 흙을 화분이나, 스티로폼 박스, 나무상자 등에 담아서 작물을 재배 하는 것을 말하며 농사지를 땅이 부족한 도심 속이라 할지라도 햇볕이 드는 공간만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기에 그 활용도가 높다.

이러한 상자텃밭 보급 활동은 장소에 커다란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에게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가족과 노인들의 여가활동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상자텃밭에 필요한 재료는 흙을 담을 수 있는 화분 등의 용기와 배합토가 주재료다. 배합토는 통기성, 보습성, 거름의 공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트모스, 펄라이트, 질석과 흙, 발효된 퇴비를 섞어서 사용하여 일반 흙을 사용했을 때 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문제와 비료성분의 용탈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상자텃밭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아동, 청소년의 생태교육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진행하면서 상자텃밭을 직접만들고, 모종을 심어서 보급한다. 이러한 아동, 청소년의 생태교육프로그램은 부모들의 참가를 기본으로 하여 가족단위로 이뤄질 때 더욱 효과적이다. 교육의 과정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가족단위의 목표가 세워지고 가족구성원간의 역할도 규정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렁이상자를 활용해서 음식물을 퇴비화 하는 것은 부모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있지 않으면 아이들만의 교육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가족단위의 공동의 작업공간이 생기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여가문화가 발생한다.

상자텃밭은 그 작은 출발이다. 노인정에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일은 노인여가문화와 더불어 노인정에서 소비하는 채소류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 텃밭은 아이들이 생태교육뿐만 아니라 급식교육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다.

② 공동체 텃밭의 운영

공동체텃밭은 일반주말농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텃밭에서의 공동체 활동을 기획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공동체 텃밭은 텃밭을 운영하는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수확물의 일부를 이웃에 나누는 것에 목적에 두거나 유기순환 농법을 체득하는 교육의 목적을 두고 운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작업과 공동체 모임이 활성화 되어있다. 밭 만들기와 거름주기, 종자나 모종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나누며 공동의 작업을 하는 등 텃밭이 공동체 모임의 공간이 된다. 가족단위의 여가활동과 더불어 텃밭을 함께 경작하는 이웃을 만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는 리더는 작물 재배력에 따른 작물의 파종과 모종, 수확의 시기, 병충해 예방과 시비 등의 농사정보를 제공하여 작물재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친환경적으로 경작되는 텃밭은 아이들이 농사체험을 하며 각종 벌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생태학습의 공간이 된다.

사 례

- ☑ 열우물 텃밭 (인천 부평구 십정1동 소재)
- ☑ 면 적 : 약 600m²
- ☑ 참여가족수 : 15가족
- ☑ 운 영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 텃밭회원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 ☑ 텃밭회비 : 연 10만원(1구좌 5평 기준)
- ☑ 회원조건 : 인천도시농부학교 수료(11강)
- ☑ 운영규칙 : 유기순환농법에 의한 경작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사용금지, 비닐멀칭 금지)
- ☑ 시 설 : 하우스내 공동농기구 보관, 평상, 농업용수시설, 퇴비간
- ☑ 연중활동(공동체 모임 및 공동작업)

월	공동활동
2	도시농부학교
3	밭만들기 / 퇴비주기 / 감자심기
4	쌈채소류 씨뿌리기, 모종만들기
5	고추,토마토, 가지, 고구마 심기
6	감자캐기 / 병충해 교육
7	퇴비만들기 교육 / 지렁이 상자 만들기
8	배추모종 만들기 / 배추 무 심기
9	엽채류 씨뿌리기
10	고구마 캐기
11	배추, 무 수확 / 텃밭농사 평가회

③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도시농업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활동가의 양성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작물의 재배법이나 농사의 기본적인 기술이 습득되어야 하며, 농업이 도시환경과 도시민의 문화와 삶의 질에 기여하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농촌의 붕괴와 농업인구의 고령화시대에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젊은 사람들을 양성하지 않는다면 농사의 대가 끊길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은 도시민들이 농사의 지식과 도시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좋은 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과정도 함께 했을 때 실질적 교육이 될 수 있다. 1년 정도는 농사체험을 하여야 이론뿐 아니라 실기에도 익숙한 도시농부를 양성할 수 있어 실습의 과정을 연중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진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은 텃밭농사의 충분한 동기부여를 한다. 농업의 가치와 텃밭의 환경적 가치, 유기순환농법에 의해 생태순환적 기능을 회복하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텃밭농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한다. 텃밭농사의 지식은 농사를 통해 체험해야 하는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부모를 훌륭한 텃밭교사로 만들어 준다.

도시농업의 기본교육프로그램에 아동지도론, 취업대비교육 등 직업교육이 보장되면 텃밭강사 등의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응용될 수 있다.

사 례

- ☑ **제 목** : 도시농부학교
- ☑ **교육목적** : 주말농장, 공동체 텃밭 등 도시텃밭 농사의 이론과 실재를 체계적으로 배워 제대로 된 도시농부를 양성,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는 활동가를 양성
- ☑ **교육기간** : 2~3월 / 저녁시간
- ☑ **교육대상** : 텃밭농사에 관심있는 성인
- ☑ **기본 교육내용**

회차	제 목	교육내용	구 분
1	도시농업의 이해	도시농업의 정의, 효과, 국내외 사례	이론
2	절기력과 전통농법	절기에 따른 농사와 유기순환하는 전통농법의 이해	이론
3	작물의 성장과 환경	작물의 생리작용과 토양	이론
4	작물재배법과 작부체계	작물별 재배법	이론
5	병해충과 잡초관리	텃밭의 병해충 예방과 잡초관리 요령	이론
6	GMO와 토종종자	먹거리 안전성 문제와 종자주권	이론
7	자가퇴비 만들기	지렁이 상자를 활용한 음식물 퇴비화 시스템	실습
8	상토와 모종만들기, 발만들기	텃밭설계와 작물별 파종법, 모종만들기	실습
9	상자텃밭 만들기	상자텃밭 활용 사례	실습

4. 도시농업 활용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의 전망

도시농업은 가족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텃밭농사는 새로운 배움의 장이고 배운 것을 대대로 나누는 장이기에 배움을 통해 자존감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사를 통한 즐거움을 배가함으로써 세대 간의 정서적 공감대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이 마을단위로 확장되었을 때 가족단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공동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동네의 공동체텃밭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그 시작이 된다. 유휴지나 공유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땅이 없으면 공공시설에 햇볕이 드는 공간을 활용하여 상자텃밭으로 농사지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동네의 공동체텃밭의 운영은 도시농업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도시농업활동가들이 맡아서 할 수 있다.

노인정 텃밭의 경우 노인정 소속의 도시농업노인활동가가 리더가 되어 노인정텃밭을 동네의 어린이집이나 아동들과 연계하여 체험학습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는 노인정의 문화가 이웃의 아이들에게 베풀어주는 나눔의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다. 노인정 텃밭 공간은 세대 간의 소통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잡게 된다.

공공공간에 만들어지는 텃밭공간을 활용한 동네단위의 체험프로그램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자치센터의 테라스 공간에 조성된 300여개의 상자텃밭은 인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아이들의 생태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주부들로 구성된 도시농업지도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주부들에게 텃밭전문강사 과정은 어린이집, 학교의 방과 후 교실, 공공공간을 활용한 아동들이 생태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녹색일자리의 창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주택가의 골목길에 상자텃밭을 가득 보급하여 골목길 농사를 동네 노인들이 담당하면 그것 또한 골목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훌륭한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작물을 재배하고 골목길의 녹색경관을 유지하며, 골목길 아이들이 농사체험과 먹을거리의 수확과 나눔을 이웃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담당하게 된다. 텃밭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도시의 외곽지역이나 농지와 인접한 도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도시텃밭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관계기관의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 된다면 주택가나 공공시설의 옥상 텃밭을 확대하여 가족단위의 텃밭농사를 더욱 확대할 수 있으며,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농사체험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도 있다. 이렇듯 도시농업은 가족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의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도 생산적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지어야 하는데 도시농업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활용하여 환경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사회적 일자리 등 공적 영역의 지원을 높이는 방향에서 활성화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계선자 외 13명(2009). 가족과 문화, 서울:신정.
-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
- 노용구(2005).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여가 정책. 한국 여가 레크리에이션 학회지 28권. 5-15.
- 여성가족부(2006).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지역단위 [가족친화형] 마을 조성한다' 2006. 11. 1.
- 행정자치부(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모델 유형화 및 공모 방안 수립 연구.
- 대한 주택공사(2009). 미래를 여는 저탄소 녹색성장이야기. 서울: 기문당.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http://cafe.naver.com/dosinongup>

가족친화 지역사회와 가정의 공동체적 삶 회복을 위한 도시농업

차 성 란
대전대학교 교수

지난해 시작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육아품앗이 사업은 지역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 자주적인 방식으로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고자 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가족친화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육아품앗이와 더불어 가족친화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도시농업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가족친화지역사회는 가족공동체-골목공동체-마을공동체의 연속선 상에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도시농업과 골목공동체 활성화의 연관성, 공공기관의 옥상을 활용한 텃밭만들기와 지자체의 지원 유도 등의 주장은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가족친화지역사회가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2006)에서 살기좋은마을의 모델 유형화를 통해 제시한 가족친화지역사회는 기본적으로 세가지 요건으로 구성된다.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둘째, 직업기회를 통한 안정적 경제환경, 셋째, 풍요로운 여가, 문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갖추기 위한 삶터만들기, 사람만들기, 프로그램만들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적자원과 시스템, 지역사회 내 시설 및 공간환경 조성, 이를 가능케하기 위한 전문가의 지원과 지자체의 사업의지 등 다양한 요건들을 필요로 한다.

도시농업은 가족친화지역사회의 세가지 요건 모든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마을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많은 사례에서 주민들은 녹색의 거주환경,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다. 도시농업은 마을 주변의 자투리땅이나 아파트 베란다, 지역의 노인회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과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농촌지역의 마을만들기는 지역단위의 공동 사업을 개발하거나, 개별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계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도시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배경이나 가족형태, 가정환경이 다양해 지역 단위의 일자리 안정이나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어렵다. 도시농업은 마을의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기 위한 활동가, 교육전문가, 필요한 자원들을 연결짓는 코디네이터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셋째, 마을 주민들의 공동텃밭을 일곱으로써 부모와 자녀는 함께 씨를 뿌리고 채소를 가꾸는 녹색 프로그램으로서의 여가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수확한 친환경 작물은 마을축제 형식을 빌어 함께 나눔

으로써 여가프로그램화 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는 물론 마을주민들이 함께 농사에 참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가족친화지역사회 조성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시농업의 영향력이 좀 더 이해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첫째, 가족친화지역사회의 핵심 요소로서 공동체성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논의.

둘째, 도시농업의 개념정의 및 유형에 대한 제시.

또는 관련 연구가 미흡해서 어렵다면 도시농업과 주말농장과의 비교,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또는 Agriculture Supported Community에 대한 소개.



참고문헌

행정자치부(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모델 유형화 및 공보 방안 수립연구. 행정자치부.